

## 울산광역시를 위한 도시특성화 제안 - Design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행정체계 구축-

임창빈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전공

### <要約>

문화의 세기, 디자인의 세기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21세기를 맞아 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행정의 기본개념을,

‘규모의 행정’에서 ‘내용의 행정’으로

‘양적인 행정’에서 ‘질적인 행정’으로

‘획일적 행정’에서 ‘다양성의 행정’으로

‘산업팽창적 행정’에서 ‘문화창조적 행정’으로

행정의 개념이 선진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산업도시인 울산광역시가 새로운 21세기를 맞아 산업과 문화가 어우러지고 주민 하나하나가 문화적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행정에 ‘디자인’을 제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정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행정의 본질이 주변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면, 그 방법의 하나로서 행정에 디자인을 도입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디자인의 제도적 도입은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주민의 역량을 결집시킴으로써 지역경제를 보다 윤택하게 함은 물론, 도시특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특성화의 요소로서는 도시이미지의 특화, 도시경관의 특성화, 문화산업 및 지역산업의 특화 등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3가지 측면에서 국내외 적용사례들을 비교분석하고 울산광역행정에 적합한 구체적인 행정시스템을 제안하였다.

## A proposal for characterization of Ulsan city - Construction of administrative system for effective use of design-

## Chang Bin Im

Major of Industrial Design, Department of Design

## &lt;Abstract&gt;

While facing 21th century called as century of culture and century of design, Each country and local self-government is being advanced while changing concept of administration from 'administration of scale' to 'administration of context', 'administration of quantity' to 'administration of quality', uniform administration to individual and various administration and 'administration of industrial expansion' to 'administration of cultural creation'

This paper has the purpose to suggest specific administrative system for UI-San city to systematically induce 'design' to have representative industrial city, UI-San city, to get the harmony of industry and culture and each of people to enjoy cultural life in the start of 21th century.

If the essence of administration is to increase 'quality of life', introduction of design to administration can be a good method, Systematic introduction of design can contribute to abundant local economy and characterization of city through increasing citizen's welfare and concentrating citizen's capacity.

As factors for characterization of city, there will be characterization of city image, characterization of city landscape and characterization of cultural industry and local industry.

This paper suggested specific administrative system suitable for UI-San city through comparatively analyzing those examples from the view of 3 elements.

## 제1장 서론

## 1-1 연구배경 및 목적

21세기는 문화의 시대, 디자인의 시대라고 불리워지고 있다.

'지방행정의 꽃'이라고도 불리워지는 '디자인'은 그 나타내는 결과의 아름다움이 퍼져나가는 영향 및 그 효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할은 일반행정업무와는 달리,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참여의식으로 공동의 비전(Vision)을 추구하고 현실화해 나가는데 있어서 자치행정의 참맛을 주민과 행정당국이 서로 교환함으로써 행정과 주민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괴리감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과 주민사이에 창의적이고 활력있는 협력, 공조체제를 조성·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창의적인 공동체의식의 성공적인 노력이야말로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지역경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추진력이 될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울산광역시는 한국의 산업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오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도시로서, 한국의 산업수도(産業首都)라고도 불리워지고 있으며 세계적인 자동차 및 선박생산, 중화학공업의 메카로서 세계에 알려져 있는, 말 그대로 ‘산업의 도시’이다. 울산이 1997년 광역시로 승격됨과 함께 주민의식도 매우 높아져 산업발전과 소득향상에 따른 주민의 문화의식도 향상되었으며, 특히 20세기말 21세기초의 인터넷의 폭발적인 발달과 보급으로 정치, 경제, 사회 각분야는 물론, 특히 문화적인 정보에 빈번히 접촉할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의 생활방식, 사고방식에 크나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울산광역시 행정에서의 ‘디자인적 사고’를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방안이 제도적으로 정착, 실현되어 울산광역시 특성에 걸맞는 계획적인 디자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여, 울산광역시가 산업도시만으로 인식되어 공해, 환경오염, 안전사고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었던 도시성격에서 탈피하여 문화도시, 역사와 전통의 도시, 밝고 활기찬 선진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1-2 연구내용 및 방법

지방자치제의 도입에 따라 각 지방정부에서는 나름대로의 지역특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나, 행정환경변화에 적절히 적용하지 못하는 행정당사자 및 주민의식 등으로 무계획적인 모방이나, 단편적 일회성의 행사위주로 그치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시행계획초기 단계에서 디자인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출발하였음에 비롯한 것으로, 아직도 행정일반직 공무원들은 ‘디자인’은 결과만을 미적으로 창출해내는 마무리단계로 인식하여 왔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정계획 초기단계인 기획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 또는 디자인전문가가 참여한 행정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지역이미지형성작업, 도시경관의 특성화 작업, 지역문화산업의 개성화작업, 지역산업의 특화작업, 행정이미지 향상을 위한 작업 등, 지역특성화의 요소들을 들어내어 이를 기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행정과 주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2장 도시 특성화를 위한 Design 프로그램

21세기로 진입함에 따라, 정보화, 국제화의 급속한 진전과 경제구조의 변화에 의해 지역사회변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비롯한 IT환경의 폭발적인 팽창과 보급은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또 ‘지식사회’로 이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고급정보의 보급화로 인하여, 각 지역간의 인식격차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평균화되고 있으며, 이의 파급효과는 자칫, 지역 고유의 정통성, 문화성을 유실케 할 수도 있는 우려할만한 상황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어서, 이 시점에서 지역의 정체성, 고유성, 문화성을 회복하고 재창출하는데 디자인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1] 도시 특성화를 위한 지역 아이덴티티의 재인식

사회환경변화 >>>	도시 경제성의 개념 변화 >>>	도시 이미지의 재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통신기술의 획기적 발달</li> <li>· 세계화, 정보화 흐름</li> <li>· 시민의식의 선진화, 개방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간의 커뮤니케이션 체계 구축</li> <li>· 지역의 고유성, 전통성 재정립</li> <li>· 도시경쟁력 비교분석</li> <li>· 지역자원에 의한 자치행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 환경, 소프트인프라 재구축</li> <li>· 도시 아이덴티티 특성화 전략</li> <li>·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통한 도시경쟁력의 기반 확보 및 발전계획 수립 자원화</li> </ul>

지역특성화를 위한 디자인정책 수립은 그 지역의 역사와 자연적 환경, 주민의 생활양식에 따라 그 '지역다움'을 창출해 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지역의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지니지 못한다면 지역특성화를 위한 디자인정책의 수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지역고유의 감성, 정서 등 독특한 문화양식을 가꾸어 나가고 있는 지역은 스스로가 자생적으로 경쟁력 있는 생존방식을 취하게 됨으로써 지역특성화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이 자연스럽게 도출될 뿐 아니라 타 지역과의 차별성을 나타내게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그 지역특성을 표현하고 가시화하는 단계에서 실제적으로 구현화할 수 있는 명확한 단서를 제공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고유하고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표 2] 도시 특성화를 위한 지역자원의 유형

구분		내용
자연계자원	해양계 자원	해양생태계(해양동·식물, 해류 등), 수산물 해양스포츠, 레저
	산림계 자원	야생동물, 휘귀식물, 산악스포츠, 레저, 산림휴양시설
	기타 자연계 자원	천문관측, 특수지형
역사문화계 자원		설화, 민요, 전설등 전승 민속자원, 고찰, 고분, 유적, 등 역사유산
산업계 자원		지역특화 산업, 특산물, 토산물, 체험농원
생활복지계 자원		복지제도 및 시설, 각종 지역자치단체의 활동
인적자원		저명학자, 예술가, 인간문화재, 지역의 인재
국제성이 있는 자원		타민족과의 교류역사, 역사적 사찰, 건축물
지역경관 환경 자원		지역의 우수한 경관, 특색 있는 환경자원
기타		그 지역만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문화, 풍습, 종교 등

또한, 지역특성화를 이루어나감에 있어서 지역의 자연환경, 산업, 역사,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한 지역고유의 독특한 이미지를 창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아이덴티티를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아이덴티티의 핵심이미지 추출을 바탕으로, 지역환경자원의 활성화, 지역산업의 개발, 관광산업의 육성, 지역문화산업진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긍심 향상으로 인한 애항심고취, 산업생산활동 활성화에 따른 지역소득 증대, 행정과 주민사이의 네트워크 강화를 꾀하여 보다 더 발전적이고 균형 있는 생활양식의 질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특성화를 위한 디자인계획으로서

1. 도시이미지 재창출을 위한 디자인
2. 도시환경 디자인
3. 지역문화산업을 위한 디자인

등에 중점을 두어, 이러한 디자인 계획들이 왜 필요하며,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 2-1 도시이미지 재창출을 위한 디자인

‘원폭 도시’로 알려져 있는 일본의 히로시마(廣島)는 ‘전쟁과 폐허, 죽음의 도시’라는 절망적인 이미지를 벗고자 행정당국과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생명의 도시, 세계평화의 도시’라는 슬로건아래 수십년 간을 노력하여 이제는 연간 천만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이 히로시마를 찾아와 생명의 숨결과 환희를 만끽하고 있다. 또한 군사도시에서 전쟁없는 평화를 기원하는 세계평화상징의 메카로 탈바꿈하였으며, 이렇게 도시의 명운(命運)을 걸고 수십년 간을 새로운 이미지를 갖춘 도시로 태어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도시의 산업경제재건은 물론, 피폭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도시이미지를 혁신함으로써, 이른바 도시경쟁력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에너지의 도시활력을 창출해 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히로시마의 시민들은 세계평화의 역사적, 체험적 산 증인으로서의 자긍심과 함께 자연의 존엄성과 생명의 고귀함을 구가하는 풍요로운 도시민으로 푸른 미래를 가꾸어 나가고 있다.

1994년의 아시안게임(Asian Game)개최, 세계평화헌장선언 등 세계적인 면모를 과시하고 있는 히로시마의 이미지 혁신사례는 도시이미지 재창출을 위한 행정과 주민협력의 대표적인 모범사례로서, 기업들의 이미지통합을 위한 C.I 사례들과는 또 다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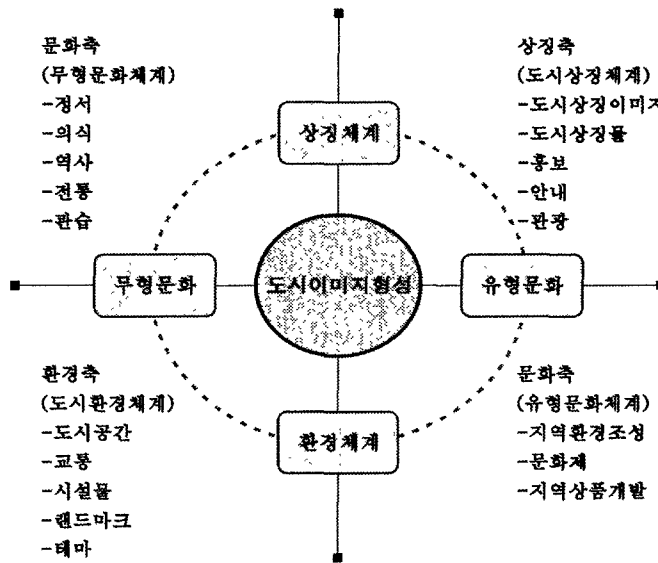
국내의 경우, 근래에 들어와서 기업 경영수단으로서의 C.I 수법을 이용한 지역이미지 재창출작업이 여러 곳에서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에 있다. 기업의 C.I 계획은 시대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을 어떻게 변혁하여야 할 것인가하는 기업자신의 비전과 개성을 표현하고 공유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업경영방식은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서도 적용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도시 특성화를 위한 C.I (City Identity)에 있어서는 그 지역의 자연환경, 역사 문화적 환경, 주민의 생활 양식등 여러 가지 특성요인이 복합된 지역고유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C.I 계획에 비하여 지역 아이덴티티 계획은 보다 점진적이고 다각적인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더욱이, 도시특성화 즉 지역활성화의 본질적 의미가 단순한 지역산업진흥에서 벗어나 지역을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이 균형을 이루는 자립적 성장의 기초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지역의 구조혁신과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연계된 통일적 프로그램의 전개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 특성화 계획에서는 지역의 통합적인 미래 비전의 구축과 다양한 지역구성원 전체로부터 이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획득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다. 따라서 통합적 비전, 또는 기본 컨셉의 토대 위에서 각 영역에서의 지역혁신이 전개됨과 동시에 지역혁신의 토달 프로듀서로서의 행정이 이를 총괄, 리드함으로써 지역전체의 조화로운 발전과 자립적 성장을 이루어 도시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다시 돌아보며 정리를 하고 이를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 디자인의 역할에 초점이 모여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추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 특성화를 위한 디자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핵심요소가 되는 지역 아이덴티티에 대한 재인식이야말로 기초적이고도 필수적인 단계라고 하겠다.

[그림 1] 도시이미지의 형성



## 2-2 도시환경 디자인

도시는 인간을 담는 그릇이며 인간성을 풍요롭게 하는 장치이어야 한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발전의 회오리속에 이른바 기능과 효율이라는 척도아래서 이기적 개인행태와 안이한 관행, 전문성을 외면한 행정편의적 제도들에 의해서 건강하지 못하고 부자연스러운, 그리고 획일적인 도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대사회의 생활양식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도시’라는 의미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개개인에게 복합기능적인 이미지외에 복합문화적인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삶의 행위, 삶의 맛을 향유하게 하는 보다 확대된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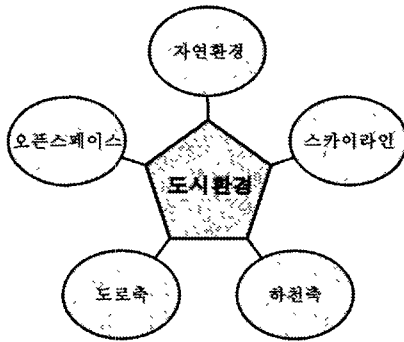
도시는 그 스스로가 복합된 사회의 강력한 상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은 도시의 매력을 이끌어내는 또 하나의 원천이 된다. 매력있는 도시는 그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애착심과 긍지를 가지게 함은 물론, 외부에서 오는 많은 사람이 그 도시의 매력을 느끼고 다시 찾게 함으로써 도시의 활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지역은 풍부한 자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 많다. 인공도시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한, 일반적으로 지역은 산과 들, 바다와 강으로 이루어져 인간 생태계를 포함한 모든 자연생태계를 이룸으로써 우리의 삶을 원천적으로 풍요롭게하며 지역의 산업발전, 역시 자연환경이 그 기초가 되지 못하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유지, 보존하는 것이야말로 지역 아이덴티티 재인식의 가장 중요하고도 기초적인 바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지역의 자연환경을 지역활성화의 전략적 자원으로 보는 관점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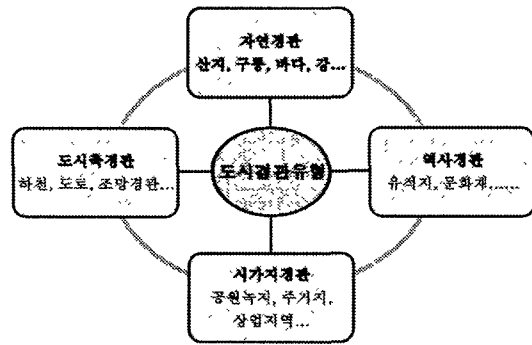
자연 그대로의 공간과 여유있는 보행자 공간, 잘 정비되고 특색있는 가로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풍요로운 정서와 건강함을 제공하여 인간미와 여유가 넘치는 시민의 생활을 누리게 할 수 있다.

도시경관은 지금까지의 기능, 효율중심의 사회체제 아래 양적측면의 도시시설공급과 자동차 중심의 도로정책에 의해서 왜곡되고 퇴폐해진 도시공간을 쾌적하고 여유있는 생활공간으로 재창출해나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도시특성화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 도시환경의 구성요소



[그림 3] 도시경관유형



### 2-3 지역문화상품을 위한 디자인

세계 각국은 이미 국가 경쟁력의 키워드중 하나로 문화산업을 선택하고, 문화적 부가가치가 높은 아이디어와 기술을 토대로 문화상품을 개발, 이를 토대로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다. 앞으로 문화적으로 강한 나라가 문화의 가치창출을 통해 경제대국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세계 각국은 자국의 문화발전과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문화산업은 경제의 부의 창출에 그치지 않고 생산국의 문화적·정서적 요소에 기초하여 그 나라 문화와 이미지를 전파하고, 정체성을 부각시키며, 소비를 재창출하는 비가시적 부가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산업의 역할은 비단 국가뿐 아니라

지역경제에 있어서도 그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간접적으로 문화산업의 발전은 민간의 문화예술축진을 가져오고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문화인프라 구축 등으로 인해 지역의 창의적 인재 육성과 투자유치 등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외에도 부가적으로 지역의 정체성 제고와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 등 수반되는 파장효과들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제 지자체들도 창의적이고 시대를 선도하는 아이디어로 지역문화상품을 창출해 내고 이를 지역마케팅전략과 접목시킴으로써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 볼 때이다.

일반적으로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을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해 생산, 유통, 소비하는 산업을 말한다. 과거 제조업과 같이 획일적, 대량생산의 체제가 아닌 소품종, 고품격의 소비자 지향적인 체제를 의미한다. 여기서 문화산업의 범주는 문화의 범위가 다양한 만큼 넓지만 크게 보아 소프트웨어적인 출판, 영상, 음반, 디자인,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과 그리고 지역의 유무형의 문화예술자원을 상품화한 지역축제, 이벤트, 역사적인 인물·사건, 특산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성 있는 문화예술을 상품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긍정적인 지역이미지 확산과 주민의 정체성 제고 등의 상당한 사회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축제나 이벤트의 행사 등은 지역경제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관광객이나 투자의 지속적 유치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5년 지방자치시대를 본격적으로 맞으면서 지역성을 살린 창의적인 문화상품 개발과 함께 지역의 문화인프라구축 등을 통해 지역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지방문화는 아직 진정한 문화자치를 이루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동안 중앙중심적인 문화행정과 정책 일변도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주로 서울 등 대도시중심의 문화예술행사, 문화복지가 이루어져서 지방과의 격차가 심화되었다. 이로 인해 지역의 문화인프라구축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다. 문화인프라 구축에 있어 문제점으로는 우선, 지역문화시설이 지역주민의 문화복지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역간 격차 역시 크다는 사실이며, 이는 자치단체들의 문화정책에 대한 투자가 적다는 문제와 연관된다. 올해로 정부 총 예산중 문화부예산의 비율이 이제 1%를 넘어섰지만 여전히 문화예산에 대한 투자는 미흡하고 특히 지방의 문화관련 재정은 중앙정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점차 자치시대로 나가면서 중앙의 재정지원도 줄어들고 있어 지자체들의 자생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우리가 상품화 할 수 있는 지역의 문화자원은 유·무형의 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전통공예, 음식문화, 지역마다 전해 내려오는 전설, 역사적인 인물, 전통음식 등 다양한 잠재적인 자원들이 산재해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특별한 유무형의 자원 없이도 얼마든지 창의적이고 다양한 문화상품을 개발할 수 있으며, 역으로 이를 통해 지역의 새로운 이미지와 명소를 창출해 낼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문적인 문화인력의 부재로 인해 지역의 문화자원을 상품화하는 능력과 마케팅 전략이 부족하다. 그나마 문화자원의 상품화로서 지자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안은 지역축제나 이벤트가 있으며, 근래에 와서는 각 지역의 특산물을 상품화하거나, 고장의 역사적, 전설적 인물의 캐릭터를 사업화하는 지역이 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문화벤처사업으로서 만화정보센터(부천시)나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파주시) 등을 시도하는 지역도 있다. 이를 산업화하려는 전략은 그 지역의 이미지와 공간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사람들의 기억에 더욱 오래 남고, 긍정적인 이미지의 창출이 가능해질 수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들과 지역주민들의 민관협동을 통해 그 지역의 이용가능한 문화예술자원을 발굴, 이를 산업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각 주체들의 문화·디자인



에 대한 경영마인드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의 문화·디자인인력들에 대한 육성과 지원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당국의 문화·디자인담당자 역시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더불어 외부전문가의 아웃소싱 등을 통해 보다 앞선 문화·디자인 행정의 역량을 키워야 하겠다.

### 제3장 도시특성화를 위한 디자인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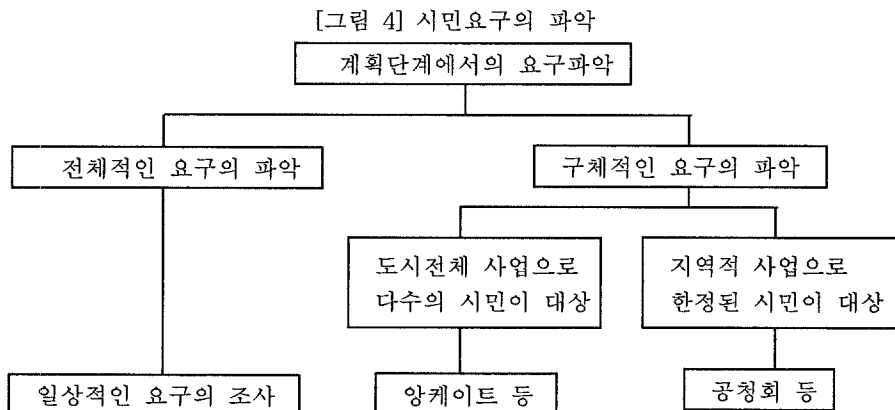
#### 3-1 디자인 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시스템

도시특성화를 위한 행정시스템은 지금까지의 관리중심적 행정개념으로부터 탈피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그리고 다양성을 포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전략경영 행정의 개념으로 변혁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목표의 수립·기획단계부터 이를 시행하기 위한 행정시스템의 재정비 또 시행과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종합적이고도 전문적인 경영시스템을 도입·개발·강화 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략경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디자인개발정책수립, 디자인실행시스템 도입 및 조정·관리,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교육 및 확보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행정에 있어서 디자인 업무의 범위와 대민 지원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행정에 있어서의 디자인 도입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아 행정, 시민, 기업 등이 함께 협의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체인 주민에게 행정에서 야기되는 모든 디자인 관련 행정서비스에 최선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과 시스템에 대해서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시민이 일상적으로 행정이나 주변환경에 대하여, 어떤 생각이나 요망을 가지고 있는가를 정기적으로 조사, 파악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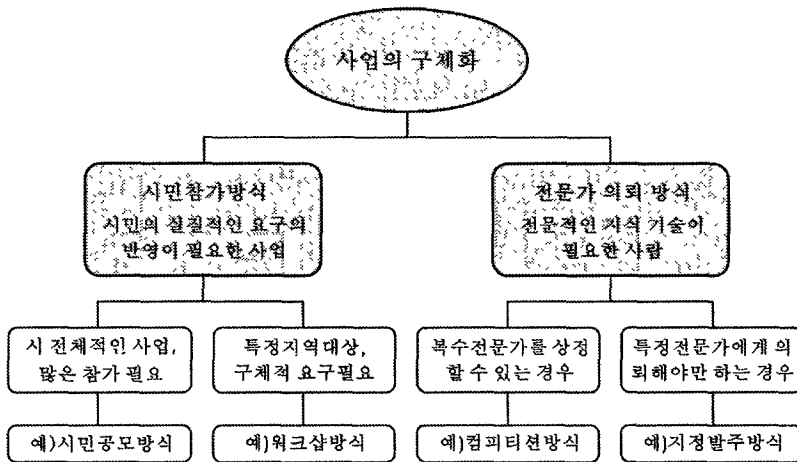


그 경우 지역의 다양한 특성이나, 지금까지 시행된 계획이나 각종 데이터 등에 입각한

조사가 필요하고 그것에 의해 시민요구에 맞는 계획의 재평가도 가능하게 된다. 쾌적한 도시 조성에 대한 시민요구의 조사, 파악하는 방법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이미 일정한 방법론이 확립되어 있는 제품개발의 시장조사방법의 응용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행정이 실시하는 디자인인 경우, 일반적인 소비시장의 경우와는 달리 ‘산다, 사지않는다’라는 취사선택권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에게 있지만, 공공디자인인 경우 일단 설치되어버리면 시민의 선택은 현실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사전에 시민의 합의를 얻어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성격의 차이는 있지만, 공공디자인도 제품디자인과 같아, 다음과 같이 계획, 입안, 시작(試作), 평가, 실시라는 기본적인 단계를 밟을 필요가 있다. 실제로 디자인 사업의 구상을 현실화시키는데는 구체화의 단계에서 디자이너나 건축가 등의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

구체화 방법에는 시민참가, 전문가의뢰라는 두 개의 방법이 있고 어느쪽을 선택하는가는 사업의 내용, 성격, 기간 등을 고려하면서 결정한다. 사업의 목적에 따라 시민이 직접 참가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참가에 의한 디자인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시민참가에 의한 디자인 방법에는 워크샵, 시민공모 등이 있다. 또 사업목적상 전문적인 지식·기술을 가진 디자이너 등의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효과적일 때에는 적절한 전문가를 선정하여 의뢰한다. 이 경우, 사업내용과 의뢰하는 전문가의 역량이나 실적을 파악한 적절한 선택, 판단이 필요하다. 디자인을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방법으로는 컴피티션(공모), 지정발주 등의 방법이 있다.

[그림 5] 디자인관련사업의 구체적인 도입방법



### 3-2 디자인-행정시스템 선행사례 비교분석

#### 3-2-1. 경기도청 행정디자인실

경기도청은 ‘기획관실’ 내에 ‘행정디자인실’을 1996년 11월부터 설치·운영하여 왔으며 구성인원은 전문직 3명 (수석디자이너, 시각디자이너, 환경디자이너 각1명)으로 구성되어 있

다. ‘아름다운 디자인’, ‘환경 친화적 디자인’, ‘도민 편의적 디자인’의 3대 목표를 설정하고 ‘한국의 제일 매력있고 특성있는 지역조성’을 꾀하여 생동감 넘치는 경기도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임창빈 外...)

행정디자인실의 주요기능은

첫째. 도 이미지 형성사업(P.I.P) 적용, 관리

둘째. 도정 홍보물, 인쇄물에 대한 시각디자인

셋째. 공공시설물의 조형, 색채에 대한 환경디자인

넷째. 디자인 분야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행정디자인실은 시각디자인, 환경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및 편집디자인, 제품디자인 등 디자인 분야별로 지역특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디자인 사업에 관련한 전문적인 추진사업을 계획하여 진행하고 있다.

1. 시각디자인분야 : 도정의 홍보 및 광고를 위한 도 이미지 통일화 계획, 포스터디자인, 광고디자인, 싸인계획, 카렌더디자인 등 인쇄매체를 통하여 시각으로 전달시키는 디자인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2. 환경디자인 분야 : 도의 환경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한 도로 안내표지판, 스트리트 퍼니취, 상업간판 통일화, 공공시설 디자인, 유족지 조성계획 등 공간매체를 통한 디자인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3. 멀티미디어 디자인·편집디자인분야 : 컴퓨터그래픽을 이용한 업무보고, 기획안 프리젠테이션, CD-ROM 제작 및 인터넷디자인의 활용을 위한 멀티미디어 디자인 영역과 주요 도서의 발간을 전자출판으로 진행하는 편집디자인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4. 제품디자인 분야 : 우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디자인개발을 통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국내·외적 경쟁력을 담당하고 있다.

[표 3] 경기도청의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항목	세부내용
1. 경기도 산업디자인전 개최	도 대규모 프로젝트 테마전으로 아이디어 공모 산학 협동 프로젝트 진행
2. 중소기업 디자인 대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지원
3. 공공시설 조형계획	공공시설 조형계획 및 색채계획-관청 및 동사무소등 공공시설물 및 유족지 등의 야경 조명 계획 공원, 보도블럭, 대단지 아파트 색채계획
4. 경기도 이미지 홍보	TV, 신문, 잡지 등 광고디자인 전개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자원 경기도 축소 모형제작

### 3-2-2 충청북도청

충청북도청은 8대시책의 일환으로 기업진흥과 내에 산업디자인실을 두고 도내 중소기업의 디자인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디자인 부서명칭은 산업디자인실이며 구성인원은 전문직 3명으로 되어 있고 주요업무로는 중소기업제품과 포장에 대한 디자인 개발지원을 위해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영하고 있다.

도에서 개발지원한 디자인의 상품화율이 제품디자인의 경우 47%, 포장디자인은 94%로 정부 출연기관인 산업자이포장개발원이 지원해서 개발한 상품화율(제품2%, 포장31%)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백만~1천만원까지의 디자인 개발비용을 전액 도에서 지원함에 따라 중소기업체의 재정적인 부담을 크게 줄여 주었다.

#### 디자인 개발지원

1. 대상업체 : 충청북도 소재 중소제조업체(공장등록업체)
2. 대상품목: 수출 또는 내수시장을 겨냥한 독창적 이미지와 품질향상을 요하는 제품
3. 지도범위 :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기타
4. 개발디자인 기간 : 최단15일~최장 60일
5. 디자인개발 : 전문 연구원 직접개발
6. 경비부담 : 디자인 개발비 무료지원

충청북도는 산업디자인실이 지역산업진흥에 기여하는 실적이 높아지고 있음을 파악하고 지원대상 범위를 명예연구소 신규 창업회사까지 확대하고 디자인 종합 전산망을 구축해 최신 디자인 정보를 행정네트웍을 통해 공급할 계획으로 있다.

### 3-2-3 사례분석

#### 1) 소속

1. 경기도청 : 경기도청은 98년 10월 현재 '2실 2관 8국 1부'를 두고 있으며 행정디자인실은 정책기획실 내에 두고 있다. 그러나 사무관급의 수석디자인어를 두고 있으면서 모두 별정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지 직제표상에도 나와 있지 않다.

경기도청은 직제상으로는 기획관실내에 있어 도지사 직속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나 충청북도청의 경우는 기술지원과 소속으로 있기 때문에 그만큼 타 부서와의 협의가 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 2)업무

1. 경기도청 : 4개의 분야로 나누어 업무를 구성하고 있으나 타 부서의 인력 도움없이 3명의 전문직 인력으로 그 모든 분야를 감당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환경디자인 분야와 시각디자인 분야의 도이미지 통합계획의 경우 지방자체단체인 수원시(경기도청 소재지) 및 도내 각 시와 군과는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 그 적용분야의 설정이나 관리가 도로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충청북도청 : 충청북도의 겨우 도내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디자인 지원만을 주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내의 환경디자인에 관련된 업무는 다룰 수 없는 실정이다. 도내의 환경디자인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게 될 때는 역시 경기도청과 마찬가지로 청주시(충청북도 소재지)의 디자인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해야 하는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 3) 앞으로의 과제

위의 두 도의 행정사례에서 보듯이 도에 행정 디자인실을 둘 때는 도청소재지의 시와 긴밀한 협조하에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행정디자인은 도보다는 특별시, 광역시와 시, 군, 구 별로 담당하는 부서를 우선해서 두어야 더 효과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행정에 있어서 디자인 마인드가 필요한 모든 부서들이 유기적으로 협조, 의뢰, 확인절차를 거쳐 업무시행과 시책을 추진하려면 현행의 각 실, 국과 같이 디자인부서도 독립되어 있어야 업무 추진이 다소 원활하게 될 것이다. 또한 경기도청과 같이 정책기획관실내에서 행정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경우는 도내 경관 관련 업무를 추진할 때 도청이나 시청의 타 부서와 협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행정직제상 충청북도청 보다는 업무가 유연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디자인 담당부서의 위치도 중요하다. 충청북도청의 경우처럼 기업지원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현재의 중소기업의 디자인 지원밖에는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 제4장 울산광역행정을 통한 도시특성화 디자인 시스템 제안

울산광역시는 1997년 7월 1일 광역시로 승격되어 새로운 광역행정을 수행하고 있다. 중구, 남구, 동구, 북구 및 울주군 등 4구 1군의 행정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1,055.73km<sup>2</sup>로서 2002년 현재 100만명이 조금 넘는 인구가 살고 있으며 2010년 인구는 약 140만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의 행정직제는 민선시장 아래 1실 7국 1부를 두고 있으며 도시국내에 도시미관과를 두고 있으나 경기도청의 행정디자인실이나 충청북도청의 산업디자인실과는 또 다른 디자인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02년 9월 현재, 울산광역행정에서는 기획관리실 등을 포함한 9개부서 및 34개과에서 520개항목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520종류의 행정업무항목에서 디자인과 관련될 수 있는 업무항목(예: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 제6조; 기획관리실 업무항목 중 3번항목: 상징물 관리에 관한 사항 등)들을 분석·선별하여 본 결과, 520개 업무항목중 137개의 업무항목이 디자인과 관련될 수 있는 업무로 나타났다.(26.3%)

디자인관련 업무항목들을 다시 관련 비중치를 5단계로 두어 분석하여 본 결과, 총 행정업무의 디자인 비중치(업무항목 X 5[디자인 비중치])를 2600으로 하였을 때 총 행정업무에서의 디자인 비중치는 549(21.1%)로 나타났다.

행정업무의 양과 질을 정량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완벽한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행정업무와 디자인과의 관련성을 대체적으로나마 들어내기 위해서는 필수적이고도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문화체육국 및 도시국의 행정업무에서는 디자인관련업무 및 디자인 비중치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문화체육국:44.3%, 도시국:49.5%) 환경국 내의 녹지공원과(54.0%), 문화체육국 내의 관광과(58.6%), 도시국 내의 도시개발과(65.0%) 등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행정업무에서 디자인의 비중치가 과반을 훨씬 넘는 경우도 여러 행정부서에서 나타나, 디자인은 이제 행정수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될 수 밖에 없는 주요행정요소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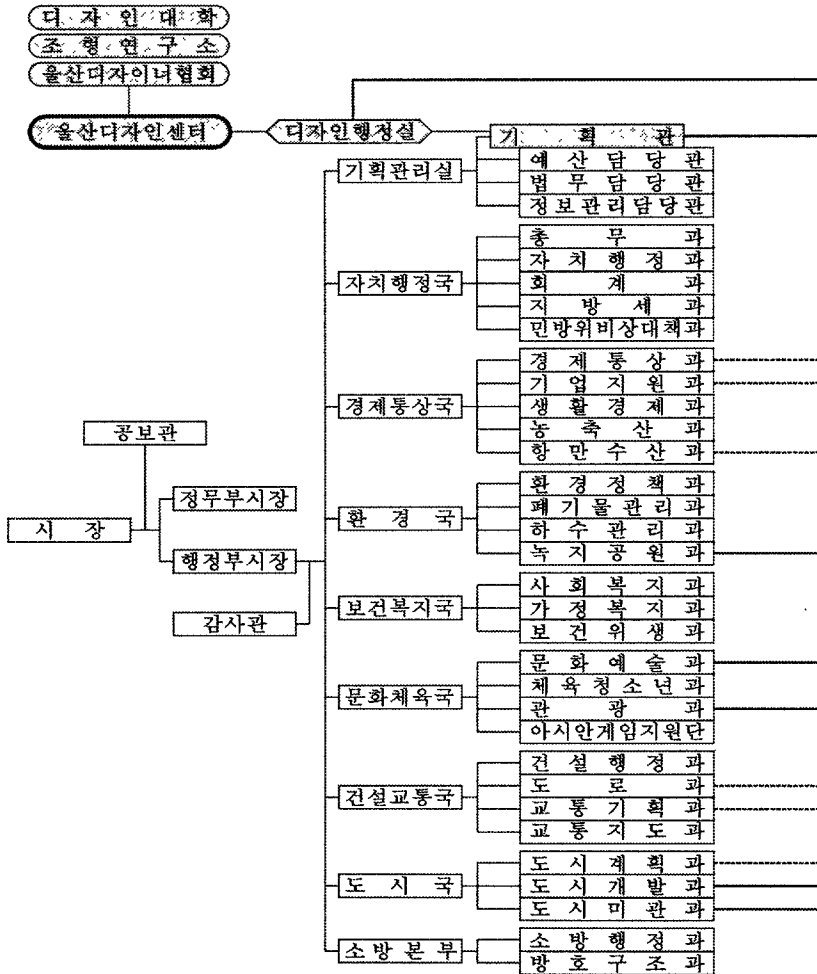
[표 4] 울산광역시 행정기구에서의 업무항목별 디자인관련 비중치 조사분석

시/국	과	총업무항목	디자인관련항목	총비중치	디자인비중치
공보관		17	9(52.9%)	85	30(35.3%)
감사관		11	0	55	0
기획관리실	기획관	22	8	110	35
	예산담당관	15	0	75	0
	법무담당관	14	0	70	0
	정보관리담당관	13	3	65	11
		64	11(17.2%)	320	46(14.4%)
자치행정국	총무과	16	3	80	11
	자치행정과	24	1	120	4
	회계과	13	3	65	13
	지방세과	13	0	65	0
	민방위비상대책과장	16	0	80	0
		82	7(8.5%)	410	28(6.8%)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과	20	3	100	17
	기업지원과	17	4	85	13
	생활경제과	10	0	50	0
	농축산과	15	2	75	9
	항만수산과	20	8	100	28
		82	17(13.9%)	410	67(16.3%)
환경국	환경정책과	19	3	95	11
	폐기물관리과	12	3	60	12
	하수관리과	7	0	35	0
	녹지공원과	10	6	50	27(54.6%)■
		48	12(25%)	240	50(20.8%)
보건복지국	사회복지과	16	6	80	28
	가정복지과	11	4	55	15
	보건위생과	15	3	75	9
		42	13(31%)	210	52(24.8%)
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	12	7	60	28
	체육청소년과	12	3	60	13
	관광과	14	11	70	41(58.6%)■
	아시아게임지원단	9	5	45	22
		47	26(55.3%)	235	104(44.3%)
건설교통국	건설행정과	17	4	85	16
	도로과	13	5	65	18
	교통기획과	13	6	65	25
	교통지도과	17	2	85	8
		60	17(28.3%)	300	67(22.3%)
도시국	도시계획과	15	8	75	33
	도시개발과	8	6	40	26(65.0%)■
	도시미관과	15	8	75	35(46.7%)■
		38	22(57.9%)	190	94(49.5%)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15	1	75	4
	방호구조과	14	2	70	7
		29	3(10.3%)	145	11(7.6%)
		520	137(26.3%)	2600	549(21.1%)

현재 울산시 광역행정의 경우, 현행 법체계상 모든 디자인관련행정업무에 전문가의 접근이 용이하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디자인관련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디자인 전문가들의 의견이 실제로 반영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행정에 디자

인시스템을 도입하는 일만큼은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연구방법에 의해 가급적 빨리 수행되어야하며 또 충분한 사전환경조성 및 타 시도의 사례들을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행정시스템으로의 디자인 도입을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시도해야 할 것이다.

[표 5] 울산광역시를 위한 효율적 디자인 행정체계 제안



우선, 기초단계로서 디자인관련현황에 대한 기초조사·연구와 함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의 디자인 인식이 필요한 과정으로 주민·행정 그리고 디자인전문가가 참여하는 정기적인 디자인 세미나 등이 필요하다.

다음 실행준비단계로서는, 행정에 디자인 마인드를 도입하는 단계로서 「디자인행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디자인행정도입기초실무작업(예:시행법령, 조례, 시행규칙등 행정기초환경조성을 위한 작업) 등을 수행해 나감과 동시에 ‘울산광역시 디자인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되어야 한다.

다음 디자인행정 실험 및 보급단계로서, 기본계획에 따른 디자인 시범사업(예:문화거리

조성, 문화상품개발, 특성화공원조성 등)을 시행하며 주민과 행정간의 공조체제를 성숙시켜 나가고 한편으로는 「울산디자인센터」 등을 창설하여 디자인기능을 최대한 행정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에 디자인 마인드를 확산·보급한다.

마지막 정착단계로서, 이 단계에서는 각 행정부서에서 필요한 디자인관련사업의 구체화 작업을 통하여 전반적인 디자인행정의 틀을 완성하고 이를 검토하여 행정디자인 총괄부서 각 부서내의 디자인기능조직 등을 정착·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면밀히 사례별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차후 사업수행에 참고함은 물론 주민 및 행정공무원 모두에게 그 평가결과를 알려 디자인 마인드를 진작시키고 이를 행정효율을 더욱 제고하는데 활용하도록 한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디자인을 행정에 도입함으로써 울산의 새로운 도시의 모습을 가꾸어 나가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시민과 행정주체 모두 높은 삶의 품격을 누리는 문화적 생활환경을 창조하여 국제적인 디자인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기초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자인·행정관련 기초조사연구</li> <li>· 「울산디자인세미나」</li> </ul>
제1단계 (도입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자인·행정추진위원회」- 시장직속임시기구</li> <li>· 디자인·행정도입을 위한 기초실무작업</li> <li>· 「울산광역시 디자인 종합기본계획」 수립</li> </ul>
제2단계 (실험 및 보급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자인시범사업(문화거리조성, 문화상품개발, 특성화공원조성 등)</li> <li>· 「울산디자인센터」 설립</li> <li>· 분야별 전문위원회 가동</li> <li>· 행정디자인실 설치 - 시장직속 직제편성</li> </ul>
제3단계 (정착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부서별 디자인기능 직제편성</li> <li>· 디자인 네트워크 완성</li> <li>· 분야별 디자인 세부과제 평가 및 분석</li> </ul>

TOTAL DESIGN 행정시스템 구축



세계적  $\frac{\text{산업}}{\text{디자인}}$  도시

결론

디자인의 세기라고 불리우는 21C에 들어서면서 세계화의 큰 흐름속에 '지역특성화'라는 명제는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화두가 될 수 밖에 없다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특히 1996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 도입,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라는 행정환경에서 ‘도시특성화’는 그 지역 경쟁력제고의 기초가 되는 명제로서, 모든 지역인들이 다시금 자기들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의 자연적, 사회적 환경을 돌아보며 재인식하는 기회를 갖음으로써 보다 나은 지역의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동시에 이를 지역경쟁력 제고에 활용하여 보다 나은 생활의 질을 높일수 있는 기본적인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대사회에 있어서 ‘디자인’은 그 영역이 거의 모든분야에 걸쳐 확대되어감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갖고면서 발전하게 되었으며 특히 ‘디자인’은 그 시대가 갖는 사회환경적 의식 및 가치 등 시대정신을 생활에 그대로 반영하며 발전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이 주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라고 볼 때 디자인과 행정은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라는 알 수 있을 것이다. 행정에 디자인 개념이 도입되고, 또 행정체계 내에 디자인 기능이 조화롭고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것이야말로 실천적인 선진문화행정의 모범이 될 것이다.

이러한 디자인행정체계의 운용으로 21C에 누릴 수 있는 독특하고도 새로운 디자인행정의 결실을 주민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주민들은 물론, 행정당국 역시 보람과 긍지를 갖게되고 또한 삶의 가치를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울산광역시의 선진행정에 반영되어 울산광역시의 새로운 정체성을 재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경쟁력을 제고하여 독특하고도 효율적인 선진행정의 모범이 되어 시민생활의 질을 높임은 물론, 세계속의 ‘디자인-행정성공도시’로서 국내외 다른 도시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행정당국과 시민 모두 같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佐藤 滋: まちづくりの 科學, 鹿島出版會
2. 涉谷 邦男: 北海道における地域振興とデザイン, デザイン學 研究特輯号 第2卷
3. 전동규, 지방자치시대 광역행정체제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1996
4. 김종수, 사회발전 향한 지방자치, 도서출판 한울, 1994
5. 한국지방자치협회, 한국지방자치론, 삼영사, 1995
6. 서영진, 지방경영시대의 선택, 나남출판사, 1994
7. 한국디자인학회, 지역문화와 디자인 산업, 한국디자인학회 봄 학술대회 주제발표집, 2001
8. 경기도 행정디자인실 안내, 경기도청 발간
9. '97 한일디자인세미나, 울산대학교 디자인연구소 발간
10. 임창빈 외, 지방자치에 있어서 디자인사고 확립 및 시행방안, 디자인학 연구, 한국디자인학회, 2000
11. <http://www.ulsan.ac.kr>
12.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시행규칙, 2002. 9. 26, 규칙제308호